

### 전남대 의대 화순 이전공사 10월 착공

사업비 405억 중 67억 확보  
연구동 등 갖춰 2012년 완공

예산확보 문제로 지연됐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이전공사가 오는 10월께 착공에 들어간다. 전남대 의과대학은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노후 된 광주시 동구 학동 의과대학을 화순전남대병원 인근으로 이전하는 공사의 사업비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대는 이미 설계가 끝났고 기획재정부의 승인까지 받은 만큼 올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2년에 의과대학을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남대 의과대학이 확보한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405억원의 16.5%인 67억원에 불과해 완공예정 기한까지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추가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체면적 3만3천200㎡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인 새 의과대학은 화순전남대병원 내 들어설 예정인 의생명과학 융합센터와 함께 지어지며, 의생명연구동, 실험실습동, 종합정보센터, 학생회관, 동물실험동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한편 전남대는 의과대학이 이전할 경우 기존 학동 의과대학 건물을 연구시설 및 임상실습 위주로 활용할 방침이지만, 전남대 병원은 포화상태에 이른 병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건물 부지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전남대 병원 관계자는 “낡은 건물을 대신해 신축건물이 들어서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의과대학 부지의 활용 등은 병원 측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특히 국립대학인 전남대의 부지는 국가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현주기자 ahj@

### 여름철 노인 건강나기

## 하루 8잔 이상 수분 섭취

(1~1.5ℓ)

## 피로·두통·열사병 막는다

장마철인데도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무더위가 지속되면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과 심장박동수, 혈당 수치가 높아지기 마련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은 혹서기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탈진 등 환자 910명 중 36.3%가 61세 이상의 노인들로 조사됐다.

### 야외 운동, 아침·늦은 오후 시간 이용

◇노인 및 만성질환자 체온조절 능력 저하=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땀을 흘림으로써 체온을 낮추지만 경우에 따라 땀 분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체온은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높아진 체온은 뇌나 다른 중요한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습도가 매우 높게 되면 땀이 쉽게 증발될 수 없어 열을 방출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노인, 비만환자, 열이나 탈수 증상이 있는 사람, 심장질환, 정신질환, 혈액순환 장애, 햇볕에 화상을 입은 사람, 알코올 섭취를 한 경우는 몸 안의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양’과 ‘수분’공급이 중요=무더위 속에 입맛을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노인들의 경우 입맛이 없

고 식사를 거르고 불균형한 식사를 하면 영양부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는 체중감소와 피하지방의 감소로 인하여 추위를 더 많이 느끼게 되며, 증상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질병에 쉽게 감염된다.

노인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으로 고등어나 연어·콩류 등을 권할 만하다. 고등어는 오메가 3계 지방산 DHA 함유량이 많아 치매 예방효과가 있고, 콩·원장·땅콩 등은 몸 안의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인들은 여름철에 쉽게 탈수증상을 느낀다.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빠져나가면 피로, 현기증, 구역

질,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열사병 증상이 나타난다. 충분한 양의 수분공급을 위해 하루에 8잔 이상(1~1.5ℓ)의 물을 마시도록 하고 염분과 무기질을 많이 섭취하도록 한다. 충분한 섬유소 섭취를 위해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이 좋다.

◇‘수면’은 충분히, ‘운동’은 적당히=수면부족도 노인건강을 위협하는 중요 요소다. 무더위와 열대야현상으로 인해 수면 패턴에 장애가 오고 피로가 올 수 있다. 수면환경을 개선하고 수면 및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등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한다.

열대야에는 잠이 오지 않는 것을 일반적이라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노인에게는 수면부족이 어지럼증 등으로 나타나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무리한 운동과 외출은 삼가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되도록 실내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야외운동 시에는 더위를 피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리하게 뜨거운 햇살 아래서 운동을 하면 몸의 체온이 올라가 정신착란 증상이 발생하거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은 혹서기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더운 날에는 수분과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운동은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부채질을 하고 있다.

/남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있다. 부득이 낮에 운동을 해야 할 경우 운동 전후에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한다. 그러나 습도가 높은 한낮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격렬한 운동이나 심한 작업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도움말=이충경 화순 보은병원장>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광주 새우리병원 ‘사랑의 인술’

골절상 입은 우즈벡 노동자 카르로씨 무료 시술

“고국에서도 받지 못했던 대접을 한국에서 받았습시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노동자 카르로(40·미장기업 근무·사진)씨는 지난달 말 광주 새우리병원(옛 광주우리들병원)에서 무료로 척추 통증 시술을 받았다.

평소 골다공증을 앓고 있어 뼈가 약한 카르로씨는 직장 동료와 축구를 하던 중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상을 입고 병원을 찾게 됐다.

그러나 치료비는 100만원에 달했고, 매달 100만원을 받아 대부분을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는 카르로씨 입장에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 사실

을 알게 된 병원 측은 카르로씨에게 무료 수술을 해주기로 결정했고, 카르로씨는 최근까지 새우리병원을 찾아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카르로씨는 “평소에도 몸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었는데 좋은 치료에, 치료비까지 무료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 드린다”며 “고국에 돌아가서도 이 은혜를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장기업 관계자도 “병원 측의 뜻밖에 환대에 깜짝 놀랐다”며 “병원 관계자에게 인사를 수심번 하는 카르로씨를 보면서 내 마음도 훈훈했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인현주기자 ahj@

## 광주 응급환자 생존율 ‘전국 꼴찌’

환자 1만명 예상 생존자수 보다 78명 더 숨져  
응급 의료체계 정부·지자체 지원 강화 해야

광주·전남지역 응급환자 생존율이 16개 시도중 최하위권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팀은 지난 2003년 기준 전국 응급의료기관 382곳의 평가자료에서 의상의 중증 등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광주의 응급환자 생존율이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남도의 환자 생존율도 광주와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광주는 예상

생존율과 실제 생존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가 ‘-78’(환자 1만명당 예상 생존자 수보다 78명이 더 숨졌음을 가리킴)로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인 울산의 ‘+85’와 비교했을 때 1.63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같은 응급 사고를 내려라도 실제 생존율이 가장 좋은 울산 지역은 가장 나쁜 광주보다 응급환자 100명당 1.63명이 더 생존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광주는 환자 9천564명 가운데 9천400명만 생존해, 예상 생존자 수 9천475명보다 75명 적으며, 전남도도 예상 생존자 수보다 56명이 적었다.

이 분석 결과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연 ‘응급의료비전 2020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응급환자의 생존율은 지역 사회의 기초 안전망을 나타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노인 치매환자 5년새 3배 증가

지난해 13만 5천명

노인성 치매환자가 지난 5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공개한 ‘노인성 질환자 진료 추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노인성 질환자는 2002년 49만9천명에서 2007년 84만7천명으로 69.7%가 늘었고, 총 진료비는 5천800억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192.5% 증가했다.

노인성 질환자란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기타 퇴행성 질환을 앓는 환자를 말한다. 이 가운데 치매 환자는 4만8천명에

서 13만5천명으로 2.8배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기타 퇴행성질환 2.1배, 파킨슨병 1.8배, 뇌혈관 질환자 1.59배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인성 질환자가 늘는 것은 우리나라 노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특히 후기 고령자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전체의 37.2%(31만5천명)를 차지해 법적으로 노인이 아닌 사람들도 적지않게 노인성 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